

전체 가구 중 62% “토지 보유 중”...전년대비 0.5%p ↑

2020년 대비 45만명 증가

개인 절반 이상 임야 보유

세종·경기 거래회전을 높여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1,851만명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준으로는 36%가 토지 보유자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

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번째로 공표됐다.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해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됐다.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2,347만가구 중 61.7%에 해당하는 1,449만가구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의 61.2%와 비교해 0.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64만명 중에는 35.8%인 1,851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것이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2만6,831㎢(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농경지 1만6,032㎢(34.6%), 대지 2,55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 토지 소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22.7%)와 70대

(19.3%)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하의 토지 소유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토지 중에는 개인 소유 토지가 4만6,445㎢(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법인 소유는 6,965㎢(11.4%), 비법인 소유는 7,783㎢(12.7%)였다.

개인 소유 토지는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법인 소유 토지와 비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1.7%, 0.4% 늘어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개인 소유 토지는 농림지

역이 48.5%(2만2,525㎢)로 가장 많았고, 법인 소유 토지 중에는 농림·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법인 소유 토지 중에서는 녹지·관리·농림지역이 전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토지거래 회전율은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자세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5일부터 국토부 통계누리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지난 1일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전자제품PL센터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조정형 위니아 대외협력담당 상무(왼쪽)가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위니아 제공

위니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조정형 대외협력담당 상무 수상

대응체계 구축·소비자 권익 증진

위니아가 최근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전자제품PL센터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조물책임(PL) 대응체계 구축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상을 수상한 조정형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위니아의 제조물책임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

고 PL사고 피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PL전담자를 배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사용 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PL대응 모범사례를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위니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장기사용 노후 감지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적극 시행, 리콜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주요 가전사

가 참여하는 가전정례협의체 활동에도 참여,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과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등 소비자 안전과 권익 증진에도 기여했으며,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조정형 위니아 대외협력담당은 “위니아는 대한민국 1등 감지냉장고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제품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 및 피해 예방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3년 연속 수상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자사 브랜드 ‘푸르지오’가 지난 1일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2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

서 3년 연속 ‘아파트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2000년 처음 시작해 올해 22주년을 맞는 한국서비스대상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

영 전반에 고객만족 혁신활동을 전개해 그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서비스 상품 발굴을 통해 고객 편의와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고, ‘대한민국 주택 명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연수 기자

현대차 노조, 4년만에 파업 돌입하나

중노위, 교섭 조정 중지 결정

노조, 내일 쟁의대책위 소집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4년 만에 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반도체 공급난에 생산 차질 등 몸살을 앓고 있던 자동차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노사 간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 4만 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 71.8%인 3만 3,236명이 이에 찬성해 가결됐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세부 파업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노조를 찾아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 이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 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호봉제도 개선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증원 ▲임금피크제 폐지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오지현 기자

이마트, 최저가 ‘가격의 끝’ 프로젝트 시작

40대 필수품 평균 13% 인하

이마트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판매량이 많은 상품들의 가격을 내려 ‘이마트에서 장보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대형마트의 본업에 충실한다는 방침이다.

4일 이마트에 따르면 ‘가격의 끝’ 첫 단계는 40대 필수상품의 가격 인하다.

40대 필수상품은 가공식품 17개, 신선식품 7개, 화장지 등 일상용품 16개로 이뤄졌다.

주요 상품중 알찬란(계란 30구)은 7,480원에서 6,730원으로, 양파(3입)는 1,800원에서 990원으로 약 45% 인하된다.

이밖에도 코카콜라, 서울우유, 신라면 등도 가격을 내렸으며 방향제 페브리즈, 메디안유일 이백션은 30~50%가량 가격을 낮춘다.

또한, 40대 품목 전체 상품들은 종전보다 평균 13.0% 내려간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이마트 매장 및 SSG닷컴 이마트몰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매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상시 최저가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는 2주 간격으로 구매 수요가 큰 상품 중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10대 상품을 선정해 최저가로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 대두이소플라본

건강기능식품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